

제공일자	2008. 7. 15	담당자	조용운 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수석(3775-9051)	연락처	3775-9018	총 2 매

제목 :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개별 보험사에 맞는 보험리스크 측정방식 도입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보험회사가 파산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액을 진보된 모형을 도입하여 측정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보험사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위험액 측정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험액을 하회하는 자본량 보유는 지급불능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위험액을 상회하는 자본량은 과도한 자본비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액의 측정 방법은 크게 정형론적인 방법, 동형론적인 방법, 동형론적인 방법, 동형론적인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4월 RBC표준모형제도를 도입하면서 동형론적인 방법인 시나리오 방식에 근거한 방법으로 위험액을 측정하고 있다.

시나리오 방식은 산출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요구자본이 보다 명백하게 정의된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결과가 시나리오에 의해 임의로 조정될 수 있으며 불리한 상황전개, 규모의 효과, 위험분산 효과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뮬레이션법, 푸리에변환법 등 동형론적인 방법, 동형론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위험액을 측정해보고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손해보험사의 전반적인 위험액 측정에 사용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실손형 건강보험에 한정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과 구분하여 측정

되지 않고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위험액을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구분하여 측정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05~2007년)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대형4개사와 중소형사로 나누어 계산한 위험계수는 아래와 같다. 위험계수에 지급보험금 등을 곱하면 요구자본양이 산출된다.

민영건강보험 위험계수 추정결과

구 분	대형4개사 위험계수	중소형사 위험계수
시뮬레이션법	0.3747	0.4053
로그노말 가정 시뮬레이션법	0.2904	0.3917
푸리에 변환법	0.3249	0.3346

위험계수 측정 결과 대형사의 위험계수가 중소형사의 위험계수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어 리스크 풀(Risk Pool)이 커지면서 규모의 효과, 위험의 분산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든 보험사에 동일한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표준모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보험사의 경우 실제 위험계수보다 큰 위험계수를 적용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구자본양이 과다 측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별 회사가 회사 고유의 위험계수를 직접 산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래와 같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감독당국과 개별 보험사는 적절한 요구자본량을 산출하기 위한 위험액 측정모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산출된 위험액을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전사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첨부 : ‘보험리스크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